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4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5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6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신항 7부두 개장
- 광양항, 동남아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유치
-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 공모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24년 3월 수출입 교역 당초 예상 대비 큰 폭 감소
- 美 볼티모어항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 컨테이너선 충돌로 봉기
- 로테르담항, '23년 탄소 배출량 전년 대비 10% 감소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4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8.5% 증가
- '23년 세계 석탄발전 용량, '16년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
- '24년 세계 철강 수요, 1.7% 증가 전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국내 첫 완전 자동화부두인 신항 7부두 개장¹⁾

- 국내 첫 완전 자동화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가 4월 5일 개장하여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감
 - 완전 자동화부두란 컨테이너 화물 처리의 모든 과정인 안벽 영역, 이송 영역, 장치장 영역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컨테이너부두를 말함
 - 부산항은 지금까지 안벽 영역과 이송 영역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여 운전하는 크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하고 장치장 영역에서만 원격 장비를 사용해 왔음
- 부산항 신항 7부두는 안벽 영역의 경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원격 조종을 통해 운영하고, 이송 영역과 장치장 영역은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예정임
 - 특히, 이송 영역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이송장비(AGV)를 도입하여 무인이송장비가 자동으로 이동 명령을 내리는 등 항만용 FMS(Fleet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임
- 부산항만공사(BPA)는 완전 자동화부두 운영으로 터미널 운영의 안정성, 정시성, 친환경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기존 재래식 부두와 비교하여 작업 구간의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자동화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처리로 인한 생산성 향상, 대부분 자동화 장비가 전기로 가동됨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저감 효과가 기대됨
- 한편, BPA는 이번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27년 개장 예정인 신항 서컨테이너 2-6단계와 진해신항 등도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BPA,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공고²⁾

- ❖ BPA는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사업자를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함**

 -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은 총 7층 규모의 건물로 입찰 대상 면적은 6,748.73㎡이며 다양한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임
 - 사용 기간은 사용 승낙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5년+5년)임
- ❖ 입찰공고 완료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 ❖ 한편, BPA는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내 최초 복합 항만시설인 북항 마리나가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전경



자료 :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963> (2024.04.12.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 크루즈선 4척 동시 기항³⁾

📍 지난 4월 3일, 부산항 개항 이래 최초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 기항함

- 부산항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총 5개의 크루즈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3척이 동시 기항한 사례는 있었으나 4척 기항은 개항 이래 처음임
- 이번에 동시 기항한 크루즈선은 SERENADE OF THE SEAS호(9만 톤, 정원 2,700명), SEABOURN SOJOURN호(3.2만 톤, 정원 450명), SILVER MOON호(4만 톤, 정원 660명), LE SOLEAL호(1만 톤, 정원 264명)임
- 특히 이 가운데 SEABOURN SOJOURN호는 1박 2일간 기항으로 승객들의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 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BPA는 크루즈선의 동시 기항에 차질이 없도록 CIQ 기관 등과 관광객 승하선 시간 및 이동 동선 등을 협의하고, 항만시설 등을 점검함

📍 한편, 올해 부산항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는 총 118회로 약 17만 명이 입항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106회보다 12회 늘어난 수치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4.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915\(2024.04.12.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915(2024.04.12. 검색))

2) 인천항

1 월드와이드 크루즈 여객 실적 '23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 기록⁴⁾

-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5일 미국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의 세레나데오브더시(Serenade of the Seas, 9만 톤급)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했다고 밝힘
 - 승객 2,490명과 승무원 891명 등 3,381명이 탑승한 크루즈 선박은 홍콩항을 출발해 기룡항, 오키나와항, 나하항, 부산항을 거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천항을 재방문함
 - '24년 1분기 인천항의 크루즈 여객 실적은 6,147명으로 '23년 실적인 12,403명의 50%의 실적을 이미 1분기에 기록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인천항만공사(IPA), 수요자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⁵⁾

- ▶ IPA는 국가전략인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추진과 인천항 수요자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해 향후 5개년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함
 - 정보화 중장기 전략은 인천항 디지털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IPA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보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점 추진사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객센터 개선,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여객서비스 발굴, 정보시스템, IT 인프라 개발 및 운영 효율화 등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4.07.),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710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4.04.16.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4.1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7145&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4.04.17. 검색)

3) 여수·광양항

1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동남아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유치⁶⁾

- YGPA는 장금상선의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인 PCI2(Pusan China Indonesia service 2)를 광양항에 유치했다고 밝힘
 - 장금상선이 운영하는 PCI2 서비스에는 약 1,800TEU급 선박 4척이 투입되며, 광양항에서는 주당 약 200TEU의 물량을 처리하여 연간 1만 TEU 이상의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월 18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에 첫 투입 선박인 SWASDEE MIMOSA호가 입항했으며, 부산~울산~광양~상해~자카르타~선전~샤먼~상해를 기항하는데 광양항에는 28일 주기로 입항할 예정임
 - 광양항은 '22년 말 주당 77.5항차에서 '23년 82항차로 항로연계성이 지속 개선되어 항로연계성 지수가 4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며, 이는 세계 900개 항만 중 30위에 해당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4.02.),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91&category=\(2024.04.15.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91&category=(2024.04.15. 검색))

2 YGPA,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부지 재분양⁷⁾

YGPA는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부지를 재분양한다고 밝힘

-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1단계 1부지는 지난 3월 8일 공모를 했으나 유찰되어 4월 26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하게 됨
- 분양대상지는 미래신소재산업시설 부지 중 4개 토지(A1, A2, A3-1, A3-2·3·4)로, 총 61만 m²임
- 해당 분양대상지에는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운송 및 창고업을 추진하는 사업신청자만 참여가 가능함
- 종전 분양공모와의 차이점은 1개 토지에 1개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해도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제안서 평가(배점 80% 이상 획득)와 입찰가격 평가(예정가격 이상)를 통해 수익계약이 가능한 부분임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분양부지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27.),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2024.04.15.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2024.04.15.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7)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27.),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84&category=\(2024.04.15.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84&category=(2024.04.15.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 공모⁸⁾

UPA는 3월 준공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1선석’의 임대사업자를 공개 모집함

- 북신항 액체부두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 전면 해상에 5만 톤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총 9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됨
-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법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석 270m와 총 9,944㎡ 면적의 항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모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임대기간은 수소터미널 축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구간



자료: 전기신문(2024.04.0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176>(2024.04.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전기신문(2024.04.0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176>(2024.04.16. 검색)

2 온산항 제3부두, 입항 선박에서 코카인 밀수 적발⁹⁾

- 코카인이 발견된 선박은 전 출항지인 캐나다 등을 경유하여 온산항에 입항한 2만 4천 톤급 화물선이며, 차항지는 뉴질랜드였음
- 잠수부가 화물선 따개비 제거 작업 도중, 선박 아래 해수 흡입구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신고함
-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어 싱가포르에 임차된 화물선이며 외국인 선원 10명이 승선하였고 한국인 선원은 없었음
- 발견된 코카인은 28kg이며 일반적인 1회 투약분이 0.03g임을 고려하면 9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임
- 한편, 지난 1월에는 부산신항에서 해수 흡입구에 숨겨진 코카인 추정 마약 100kg이 발견된 바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경상일보(2024.04.10.),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529>(2024.04.16. 검색)

3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장, 올해 9월 착공¹⁰⁾

- ‘울산태화호’는 우리나라 최초 전기추진선으로 전용 계류장이 작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되면서 계류장 조성이 가시화됨

 - 국내 최초의 스마트 선박인 울산태화호는 산업부와 울산시가 448억 원을 투입해 현대미포조선소가 '20년 7월 설계 착수 후 길이 89.1m, 폭 12.8m, 높이 5.4m, 2,700톤급, 정원 300명, 총 4층 규모로 건조한 전기추진 기반 LNG·디젤 하이브리드 선박임
 - 현재 울산태화호는 울산신항 동방부두를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접안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전용 계류장을 남구 장생포동 60-20에 확보함
 - 계류장은 고래박물관 전면 해상에 선석 110m × 19m 잔교식으로 건설되며, 1년 후 완공을 목표로 올해 9월 착공할 계획임
 -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울산항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울산태화호의 계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람선 부두 2만 7천 톤급 1선석의 신규 개발을 확정했으며, 울산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100억 원을 편성함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장이 조성된 후,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 장생포 지역에서 울산태화호를 활용한 울산 연안 해양관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울산관광의 새 랜드마크로 활용될 전망이다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장
조감도



자료: 울산신문(2024.04.15.),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049>(2024.04.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울산신문(2024.04.15.),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049>(2024.04.16. 검색)

5) 평택·당진항

1 자동차 수출입 감소에도 전기차는 가장 큰 비중 차지¹¹⁾

- 올해 평택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했으나, 전기차 비중은 높게 나타남
 - 평택세관 신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평택세관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한 14억 6천만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8억 4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됨
 -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 중 국가별 자동차 수출 실적은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함
 -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입 중 주요국별 자동차 수입 실적은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의 수입이 큰 폭 증가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수입은 감소함
 - 연료별 수출액 및 수입액 비중은 전기차가 가장 높은 42.5%, 33.0%를 기록했으며, 휘발유 차량이 각각 35.2%, 32.8%, 하이브리드 차량이 11.9%, 26.8%, 경유 차량이 10.5%, 7.3%로 나타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1 경북권역 항만·어항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완료¹²⁾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청)은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완료함
 - 경북권역 항만·어항 건설현장 12개소 및 시설물 210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인 단부·개구부 떨어짐, 거푸집·동바리 무너짐 등에 대한 예방조치와 지반 약화에 따른 기존 시설물 침하·붕괴 여부, 안전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 이번 점검 결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물의 경우 안전시설(안전난간·방충재·차막이 등) 파손, 소형어선 부두 침하, 건축물 철근 부식 및 누수 등의 위험 요소를 확인함
 - 포항청은 안전시설 파손 등은 즉시 보수하고 그 외 사항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설 현장과 시설물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경인일보(2024.03.3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331023023346\(2024.04.16. 검색\)](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331023023346(2024.04.16. 검색))

1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4.16.), [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103811\(2024.04.17. 검색\)](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103811(2024.04.17.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항 중심 수산물 산업 및 콜드체인 활성화¹³⁾

- ▶ 지난 3월 25일 동해시는 동해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산업단지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대한태평양어업인협회 및 이도밸류동해(주)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동해항을 통한 수산물의 수입과 수산물의 안전한 냉동보관을 비롯한 신속한 입출고 및 물류 안정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연간 9천 톤에서 1만 1천 톤 규모의 냉동·냉장 수산물 수입 물량을 확보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한태평양어업인협회는 4월부터 매월 냉동 명태 3천 톤을 동해항을 통해 수입하여 올해 상반기 약 9천 톤(약 690TEU)의 냉동 명태를 수입할 예정임
 - 기존 동해항의 국제 정기항로 활성화는 물론 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치와 동해자유무역지역 및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콜드체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도밸류동해(주)는 지난 '22년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저온물류표준공장 운영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 식품보존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고압가스냉동제조허가, 수산물 가공업 등의 인허가를 취득함
- ▶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원도 동해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및 콜드체인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3) 강원신문(2024.03.26.),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804>(2024.04.16. 검색)

8) 목포항

1 중대재해 예방과 규제 개선을 위한 항로표지 관계자 업무 간담회 개최¹⁴⁾

-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사항 설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관계자 업무 간담회를 개최함


 -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표지시설 사업도급자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업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안전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됨
 - 또한,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항로표지 관련 업무의 개선책도 논의할 예정임
-  목포청 항로표지과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대산항

1 서산시, 크루즈 출항 앞두고 점검¹⁵⁾

-  서산시는 다음 달 예정된 크루즈의 성공적인 출항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입출입자 홍보·안내, 대중교통, 출입국 등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음

 - 코스타세레나호는 오는 5월 8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일본, 대만 등 동북아를 기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의 일정을 시작할 예정임
 - 서산시는 '22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본 크루즈 포트세일즈에 참석해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23년 6월 롯데관광개발과 서산을 모항으로 한 국제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롯데관광개발은 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15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코스타세레나호 승선 설명회를 개최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4.12.),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3758\(2024.04.15.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3758(2024.04.15. 검색))

15) 대전일보(2024.04.13.),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129\(2024.04.16. 검색\)](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129(2024.04.16. 검색))

10) 군산항

1 군산시,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 세일과 화물 유치 등 사업 다각화추진¹⁶⁾

- 🏢 군산시는 전북자치도, 군산항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포트 세일즈단’을 구성해 군산항 포트 세일즈에 나설 예정임
 - 군산시는 도내 수출·수입 기업 가운데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화주를 대상으로 군산항 이용을 권하고, 화물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항만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임
 - 군산항에 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펠릿 등 주력 화물의 유치를 위해 군산시는 ’24년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1) 마산항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청), 관내 위험 해역 항로표지 확충¹⁷⁾

- 🏢 마산청은 관내 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국비 약 11억 원을 투입해 항로표지 설치공사에 착공함
 - 등표는 항해하는 선박에 장애물의 존재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암초나 얕은 수심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등화를 밝히는 시설물임
 - 이번에 설치되는 통영↔거제 간 견내량 해역은 수로 폭이 좁고 조류가 빨라 매년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간 어민들의 숙원 사업인 항로표지가 설치되면서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통영해경 추산 사고 현황: ’19년 3건, ’20년 3건, ’21년 1건, ’22년 3건, ’23년 1건
- 🏢 마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통영해경 추산 사고 현황: ’19년 3건, ’20년 3건, ’21년 1건, ’22년 3건, ’23년 1건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연합뉴스(2024.04.03.),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3104000055?input=1195m>(2024.04.18. 검색)

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3.28.),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03418>(2024.04.16.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24년 3월 수출입 교역 당초 예상 대비 큰 폭 감소¹⁸⁾

- 📌 중국의 '24년 3월 수출입 증가세가 당초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밑돌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

 -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4년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 수입은 1.9% 감소함
 -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른 3월 중국의 수출은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다만, 지난해 3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생산량이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입 역시 당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1.9%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나타냄

- 📌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산업의 과잉생산력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중국의 더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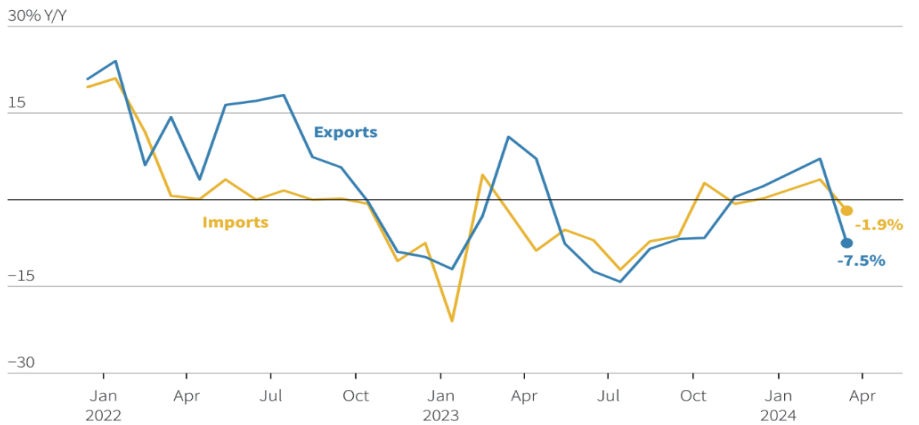
 -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24년 1분기 총 1.32백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수치임
 - 관세청은 전기차가 몇 대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기타 청정 에너지 수출의 상품이 미국과 유럽과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18) REUTERS(2024.04.12.),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march-exports-imports-shrink-miss-forecasts-by-big-margins-2024-04-12/\(2024.04.15.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march-exports-imports-shrink-miss-forecasts-by-big-margins-2024-04-12/(2024.04.15. 검색))

- ◆ 한편, 중국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이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 증가하는 지방 정부 부채, 약한 민간 부문 지출 등으로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간의 부동산 위기 등으로 단기간 내 전면적인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Change in exports and imports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march-exports-imports-shrink-miss-forecasts-by-big-margins-2024-04-12/> (2024.04.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 증대로 새로운 무역 긴장감 조성¹⁹⁾

- 중국 공장들은 둔화된 경제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고 이를 외국 시장에 저렴하게 수출하고 있음**

 - 이러한 수출 공세로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급증하여 현재 약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중국 제품의 과잉공급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 긴장감을 촉발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자동차가 덤핑 수출 제품 중 하나임
 -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은 유럽의 산업기반을 구성하는 전략적인 중요 산업인 전기자동차가 가격 경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
 - 또한 ’23년 4분기 중국은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의 테슬라(Tesla)를 앞섰으며, 이는 저렴한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증가해야 하는 입장이라 밝히며 혁신적인 제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높은 가치의 수출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은 장기화된 부동산 불황, 취약한 가계 소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싸우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 및 자국 내 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힘**

 - 유럽연합의 경우 전기자동차 외에도 중국의 바이오 디젤 덤핑 조사 및 철강 산업보호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중국 역시 미국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IRA 등)에 대한 불만을 WTO에 제기하거나 EU로부터 수입되는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역 분쟁이 가중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이 국제 무역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올해 선진 경제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오히려 자원 과잉공급 및 저가 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 긴장감 지속은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9) CNN News(2024.03.28.), <https://edition.cnn.com/2024/03/28/business/china-goods-exports-trade/index.html>(2024.04.12. 검색)

2) 아시아



1 말레이시아 포트클랑(Port Klang)항, 컨테이너 하역능력 2,700만 TEU까지 확대 예정²⁰⁾

- ▶ 말레이시아 최대항만인 포트클랑(Port Klang)항은 83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현재 1,400만 TEU의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능력을 2,700만 TEU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힘
 - 포트클랑항 터미널운영사인 Westports Holdings는 포트클랑항의 운영기간을 '24년에서 '82년까지 58년 연장함
 - 한편 '23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도 Westports社가 현재 9개 터미널에서 17개 터미널로 포트클랑항을 확장하는 계획을 승인함
 - 포트클랑항의 확장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 싱가포르, 태국 등 말라카 해협 주변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트클랑항의 확장은 제조상품의 허브항으로서의 이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도쿄항, '23년 크루즈선 입항 실적 최다 기록²¹⁾

- ▶ 일본의 도쿄항은 '23년 기준 총 49척의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여 '12년 이후 최다 입항 실적을 기록함
 - 이러한 크루즈선박의 증가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회복과 도쿄 국제 크루즈터미널 개장이 있음
 - 기존 도쿄항을 이용하던 크루즈선박은 항 내 레인보우 브릿지 안쪽에 위치한 하루미 여객선 터미널에 기항해왔음
 - 그러나 52m 높이의 레인보우 브릿지를 통과할 수 있는 크루즈선박만 접안이 가능해, 이용 선박이 제한적이었음
 - 도쿄항은 지속 증가하는 크루즈선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 레인보우 브릿지 외측에 도쿄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건설하였으며, 지난 '20년 9월 개장함

20) NIKKEI ASIA(2024.04.10.), <https://asia.nikkei.com/Spotlight/Supply-Chain/Malaysia-s-largest-port-to-double-capacity-to-chase-Singapore/>(2024.04.19. 검색)

21) Asia News Network(2024.04.22.), <https://asianews.network/tokyo-port-sees-record-number-of-cruise-ship-calls-in-2023/>(2024.04.23. 검색)

- 도쿄항은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통해 '24년 5월까지 35개의 기항을 접수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기항도 협상 중으로, 올해 크루즈선박의 기항 기록도 '23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인도, 몰디브에 생필품 수출 허용²²⁾

인도는 '24~'25년 회계연도('24.04~'25.03) 기간 몰디브에 생필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함

- 인도는 지난 '81년부터 몰디브에 달걀, 감자, 양파, 설탕 등 상품을 수출해오면서 품목별 할당량을 정해왔는데,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할당 비율을 높임
- 특히 건설 붐이 이는 몰디브에 수요가 많은 강모래 및 자갈은 할당량 비율이 약 25% 올라 물량이 100만 톤으로 늘어남
- 인도 정부가 몰디브에 수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접국을 우선하는 정책과 인도양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보와 성장을 추구하는 SAGAR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SAGAR 정책은 지난 '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발표한 정책으로,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몰디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2) Business Today(2024.04.16.), <https://www.businesstoday.in/latest/world/story/india-imposes-port-restrictions-on-supply-of-prohibitedrestricted-export-items-to-maldives-425782-2024-04-16?onetap=true>(2024.04.19. 검색)

3) 미주



1 볼티모어항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 컨테이너선 충돌로 붕괴²³⁾²⁴⁾²⁵⁾²⁶⁾²⁷⁾²⁸⁾

- 📍 3월 26일 메릴랜드(Maryland)주 볼티모어(Baltimore)에 있는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충돌하면서 다리가 붕괴됨
 -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한 컨테이너선은 전력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추진력과 동력을 상실하여 3월 26일 오전 1시 28분경 다리에 충돌했으며, 다리가 붕괴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던 8명의 노동자 중 6명이 사망함
 - 충돌한 선박은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싱가포르 선주사인 그레이시오션에서 용선한 9,972TEU급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이며, '15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됨
 - 달리호가 충돌한 다리는 볼티모어항을 가로지르는 전체 길이 약 2.6km 정도의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Francis Scott Key Bridge)로 '77년 개통했으며, 이 사고로 다리 일부가 붕괴됨
 - 볼티모어항은 폐쇄되지 않고 육상 작업은 이루어지나, 수로가 막히면서 선박의 입출항에는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4월 말까지 폭 280피트, 깊이 35피트의 수로를 개통하고 5월 말까지 폭 700피트, 깊이 50피트의 메인 수로를 다시 열 예정임
 - 기존에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던 화물들이 노퍽(Norfolk)항과 뉴욕/뉴저지(NY/NJ)항을 이용하면서 두 항만의 물동량 처리가 10% 증가하게 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시간 지연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Port Technology(2024.03.2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baltimore-bridge-collapses-after-containership-collision/>(2024.04.16. 검색)

24) Port Technology(2024.03.2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baltimore-suspends-traffic-operations-amid-bridge-collapse/>(2024.04.16. 검색)

25) Port Technology(2024.03.2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two-bodies-recovered-from-baltimore-bridge-collapse/>(2024.04.16. 검색)

26) Port Technology(2024.04.0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lternative-shipping-channel-opens-amid-baltimore-bridge-collapse/>(2024.04.16. 검색)

27) 코리아쉬핑가제트(2024.04.0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1184(2024.04.16. 검색)

28) Seatrade Marine(2024.04.09.),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baltimore-disruption-could-be-compounded-us-east-coast-labour-dispute>(2024.04.16. 검색)

2 NWSA(The Northwest Seaport Alliance), 화물 및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²⁹⁾

- NWSA는 시애틀항과 타코마항의 국제 컨테이너 철도 물동량 증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포괄적인 화물 및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함**

 - 도입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1,100만 달러 규모이며, 복합운송 물동량 증대, 선박 스케줄 안정성 개선, 해상 터미널 운영 확대를 목표로 함
 - 인센티브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항해 일관성 및 정시 도착 인센티브 프로그램, 국제 컨테이너 철도 화물 인센티브, 게이트 운영 인센티브로 구성됨
 - ‘항해 일관성 및 정시 도착 보너스 프로그램’은 항해 일정 준수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선사에게 보상하는 내용으로 정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상위 3개 선사에 대해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의 현금 인센티브(총 100만 달러 규모)를 제공함
 - ‘국제 컨테이너 철도 화물 인센티브’는 미국 내륙 시장을 오가는 복합 철도 화물 운송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추가 철도 운송량에 대해 리프트당 100달러를 지급(총 800만 달러 규모)하게 됨
 - ‘게이트 운영 인센티브’는 효율적인 화물 이동, 트럭 운전자 경험 개선, 지역사회 영향 감소를 위해 터미널 운영을 간소화(5일제 운영, 운영 시간 연장 등)하는 것으로 일관된 게이트 운영 시간 준수 및 연장 게이트 서비스 제공 터미널에 총 2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9) Port Technology(2024.04.1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wsa-establishes-cargo-and-service-incentive-programme/>(2024.04.16. 검색)

4) 유럽



1 유럽 지역 항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상황으로 물동량 감소³⁰⁾

- 중동, 인도, 극동아시아 지역 항만이 부상하는 등 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된 유럽 항만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지정학적 상황 또한 유럽 항만에 영향을 주고 있음**

 - WTO는 '23년 세계 상품 무역이 1.2% 감소했으나, '24년과 '25년에 각각 2.6%,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3년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질 수입 수요가 약했으나 중동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힘
 - 해운 컨설팅사 Drewry는 아시아 국가 간의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감소, 제조업 다각화로 인한 아시아 내 무역 흐름 창출, 시장 구매력 향상 등의 이유로 중동, 인도, 극동아시아 항만의 경쟁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 반면, 유럽 항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로 향하던 상당한 물동량을 잃었으며, 홍해 위기의 영향으로 동부 지중해 지역 항만이 침체하는 등 여러 충격에 시달리고 있음
 - 로테르담항은 '19년 이후 물동량이 9% 감소하여 동기간 3.6% 증가한 두바이항에 추월 되어 물동량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러시아 무역에 더욱 의존하던 함부르크항은 동기간 16% 이상의 물동량 감소를 나타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0) Seatrade Maritime(2024.04.19.),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european-ports-contend-slow-economic-growth-geopolitical-impact>(2024.04.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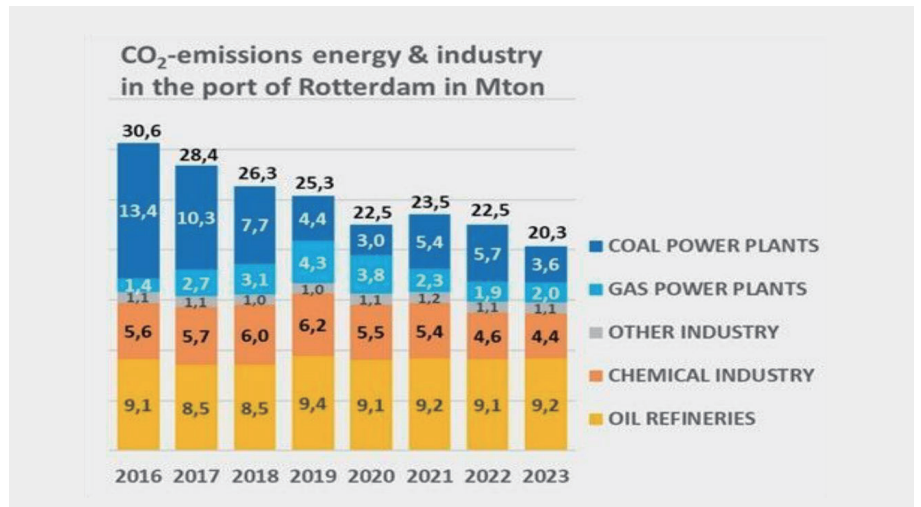
2 로테르담항, '23년 탄소 배출량 전년 대비 10% 감소³¹⁾

- 로테르담항의 '23년 CO₂ 배출량은 전년 대비 10%(220만 톤) 감소한 2,03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90년 교토 의정서 기준연도 배출량보다 낮은 수치이자, CO₂ 최고치를 기록했던 '16년 수치보다 3분의 1 낮은 수준임

 - 이는 마스블락테(Masvlakte)에 위치한 두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량을 전년 대비 2백만 톤 이상 감소시킨 결과임
 - 반면, 항만 내 세 개의 가스 화력 발전소의 배출량은 10만 톤 증가했으며, 마스블락테 내 다섯 개의 화력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총 20% 감소함
 - 항만 내 정유소는 높은 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유지되었고 CO₂ 배출량은 약 10만 톤 증가함
 - 화학 산업은 가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아 CO₂ 배출량은 20만 톤 감소함
 - 전국적으로, 네덜란드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기 생산을 12% 줄였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높여 풍력 에너지 생산은 35% 증가, 태양 에너지 생산은 24% 증가함
 - 로테르담항은 유럽 및 네덜란드 탄소 감축 목표에 따라 '30년에 CO₂를 930만 톤까지 줄여야 하며, CO₂ 포집, 수소 에너지 사용,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 등 현재 로테르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총 810만 톤까지 감축할 수 있는 수준임

단위: 백만 톤

로테르담항 CO₂ 배출량



자료: Port of Rotterdam(2024.04.17.),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10-decrease-port-rotterdam-co2-emissions-2023>(2024.04.23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1) Port of Rotterdam(2024.04.17.),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10-decrease-port-rotterdam-co2-emissions-2023>(2024.04.23.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보타니항과 멜버른항에 대규모 시위 발생³²⁾

- 호주의 보타니항과 멜버른항에서 이스라엘 컨테이너선 ‘갠지스호’의 입항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지난 3월 22일은 멜버른항, 24일은 보타니항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
 -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무단 시위에 대응하여 총 19명을 체포했으며 체포된 시위자들은 5월 법정에 출두할 예정임
 - 시위의 영향으로 보타니항 패트릭스 터미널에 근무 교대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으나 그 외의 항만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본 시위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밝혀짐**

 - 컨테이너물류협회(CTAA)는 평화로운 시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2) Daily cargo news(2024.03.25.), [https://www.thedcn.com.au/subscriber-content/pro-palestine-protests-flare-up-at-botany-and-melbourne/\(2024.04.13. 검색\)](https://www.thedcn.com.au/subscriber-content/pro-palestine-protests-flare-up-at-botany-and-melbourne/(2024.04.13. 검색))

6) 아프리카



1 더반항, 뉴린 멀티 모달 철도 터미널 개장³³⁾

- 4월 4일 더반항 인근에 위치한 뉴린 PX Bayhead 철도 터미널이 개장, 이 터미널의 건설비용은 약 1억 7천만 달러(한화 약 2,500억 원)로 해상, 철송 및 육송 연계를 지원하는 멀티 모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더반시 및 이테퀴니메트로, 크와줄루-나탈 지역 그리고 전국적인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실릴 라마포사는 이 시설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터미널이 남아프리카로부터 아프리카 대륙 및 해외로의 물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 터미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혼잡한 항만 중 하나인 더반항의 넓고 제한적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터미널 디자인을 도입하여 동시에 7개의 블록 열차(각각 50대의 화물수송 차량 수용)를 수용할 수 있음
 - 터미널 건설 중 약 4,013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운영 단계에서는 1,000개 이상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됨
- 터미널은 이미 하루에 약 1,400대의 트럭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으며 매달 약 38만 톤 이상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Engineering news(2024.04.05.),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newlyn-launches-r34bn-multimodal-rail-terminal-at-durban-port-2024-04-05\(2024.04.17. 검색\)](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newlyn-launches-r34bn-multimodal-rail-terminal-at-durban-port-2024-04-05(2024.04.1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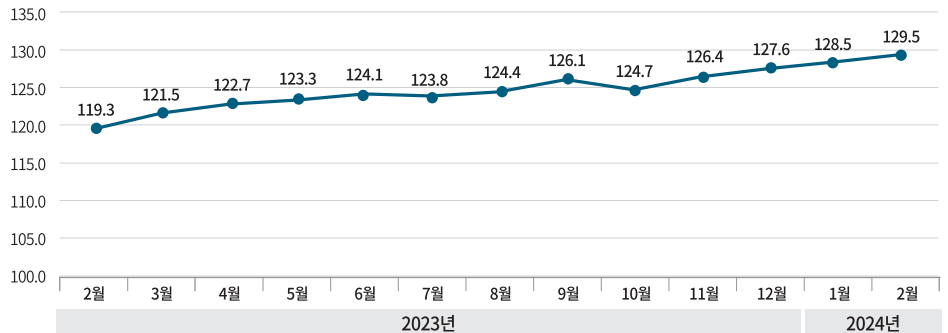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① '24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8.5% 증가³⁴⁾

- 📌 '24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한 129.5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춘절 영향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한 142.0p를 기록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2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전월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3.6% 감소한 104.0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19.3	121.5	122.7	123.3	124.1	123.8	124.4	126.1	124.7	126.4	127.6	128.5	129.5	0.8	8.5	
China Index	129.8	135.6	136.5	137.3	139.2	137.2	139.0	138.9	136.0	138.3	140.8	145.6	142.0	-2.5	9.4	
North Range Index	107.9	98.5	108.8	105.8	106.4	107.3	104.6	103.5	103.6	102.2	102.4	101.0	104.0	3.0	-3.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4.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4.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4)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4.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4.15. 검색))

2 세계무역기구(WTO) 올해 세계 교역 증가 전망,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존재³⁵⁾³⁶⁾

WTO는 4월 10일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보고서 발표를 통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인플레이션 하락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반등한 후 '25년에는 3.3%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이 국제 무역에 부담을 주면서 '23년 무역성장률이 1.2% 감소한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수출이 5.3%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북미 3.6%, 중동 3.5%, 아시아 3.4% 등 모두 완만한 수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럽의 경우는 1.7% 성장에 그쳐 다른 지역의 수출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입은 각각 5.6%, 4.4%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남미(2.7%), 중동(1.2%), 북미(1.0%), 유럽(0.1%) 등은 수출 증가세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 무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이 회복세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에너지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세계 무역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또한 지정학적 갈등은 세계 무역 블록화의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세계 무역의 블록화는 무역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CNBC(2024.04.10.), <https://www.cnbc.com/2024/04/10/wto-forecasts-rebound-in-global-trade-but-keeps-geopolitical-risks-in-focus.html>(2024.04.12. 검색)

36) WTO(2024.04.10.),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4_e/tfore_10apr24_e.htm(2024.04.12.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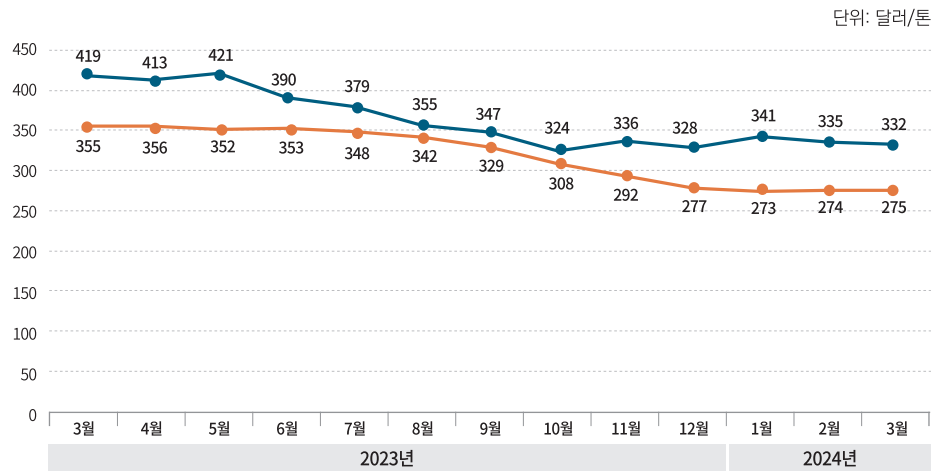


1 '24년 3월 옥수수의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식용은 상승 기록³⁷⁾

- 📊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275달러/톤을 기록한 반면,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332달러/톤을 기록함
 - 식용 밀(332달러/톤)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0.9% 하락한 반면 사료용 밀은 전월 대비 0.4% 증가한 275달러/톤을 기록함

밀 곡종별 수입단가 추이

- 밀 제분
- 밀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추이

구분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밀	제분	419	413	421	390	379	355	347	324	336	328	341	335	332
	사료용	355	356	352	353	348	342	329	308	292	277	273	274	275
옥수수	제분	356	345	346	339	325	300	305	289	276	276	292	267	272
	사료용	332	334	337	336	332	321	305	284	263	252	258	258	257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03.29.), 국제곡물 관측월보,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05/page/1\(2024.04.19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05/page/1(2024.04.19%20검색))

2 '24년 2분기 곡물수입단가지수 10분기 내 최저 전망, 식품·사료값 인하 요구 증가 예상³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4년 2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138.8p, 사료용 135.5p로 최근 10분기 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됨
- '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 144.9p, 사료용 141.1p이었으며, KREI는 2분기에 식용과 사료용 각각 전 분기 대비 4.2%,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으로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2년 3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하면 수입 곡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가공식품과 사료업계에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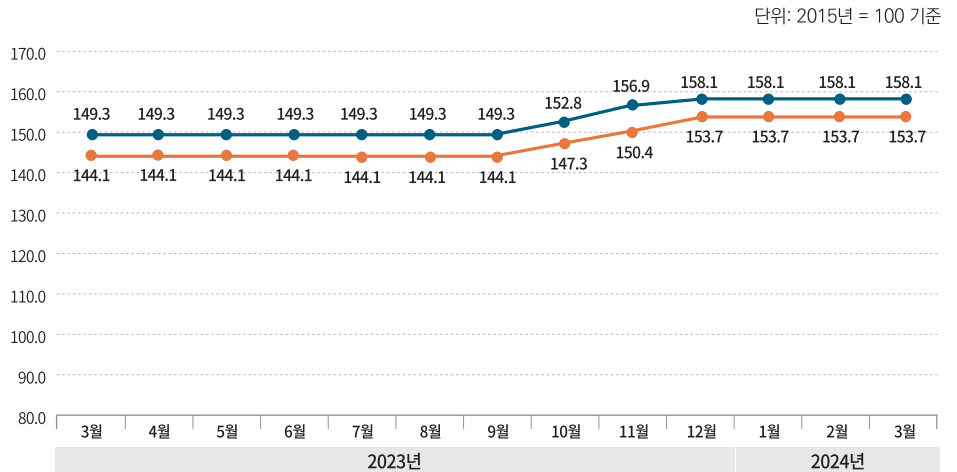
1 3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24년 3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8.1p, 153.7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4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52.8	156.9	158.1	158.1	158.1	158.1	0.0	5.9		
고로슬래그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7.3	150.4	153.7	153.7	153.7	153.7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4.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4.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폐기물반입세 재추진³⁹⁾

- 3월 25일 충청북도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함
 - 협의회는 ‘자원순환세’가 자원 순환이란 긍정적 의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명칭을 ‘자원순환시설세’로 변경하기로 함
 -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폐기물 공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협의회는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업별 재활용 폐기물 수급 현황과 공장 주변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함
- 시멘트 업계와 폐기물 공급업자 등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중과세라는 불만을 표함
 - 단양군에 따르면 ’21년도 전국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약 905만 톤이며 이를 kg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임
 - 협의회는 자원순환시설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최소 56억 원부터 최대 2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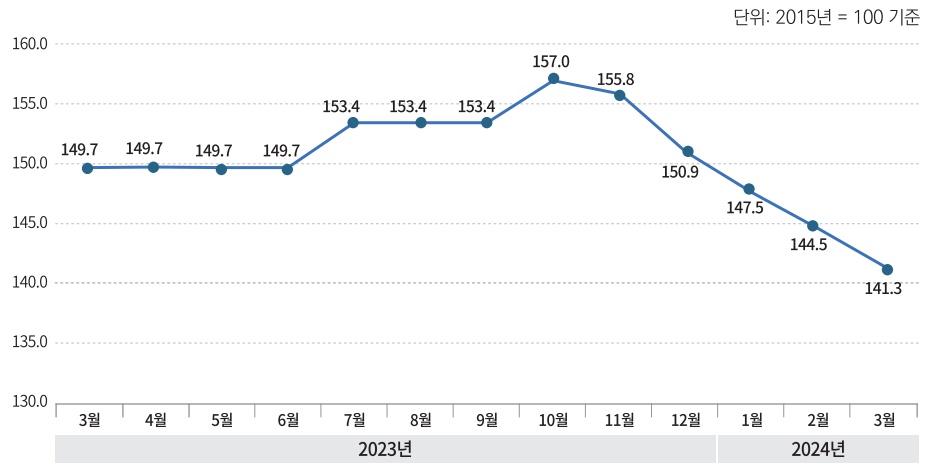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3월 생산자물가지수 141.3p 기록, '23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24년 3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49.7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157.0	155.8	150.9	147.5	144.5	141.3	-2.2	-5.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4.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4.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토교통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착수⁴⁰⁾

- 4월 7일 국토교통부는 골재 수급에서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고도화 작업에 착수함
- AGRIS는 골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골재 품질검사 결과와 골재 채취업체 등에서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골재 채취 현황과 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AGRIS는 정보와 기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작업은 AGRIS의 정보를 고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골재 수급 및 공급,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 골재가격 동향을 분석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AGRIS의 운영체계도 개선하여 골재 품질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관리, 성적서 발급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할 예정임
 - 또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골재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 골재 수급과 골재자원조사, 골재채취현황, 업체현황 등 각 분야에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으로 취합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빅데이터화하는 것이 목표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0) 대한경제(2024.04.08.),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051511409100481>(2024.04.17. 검색)

5) 석탄



① '24년 3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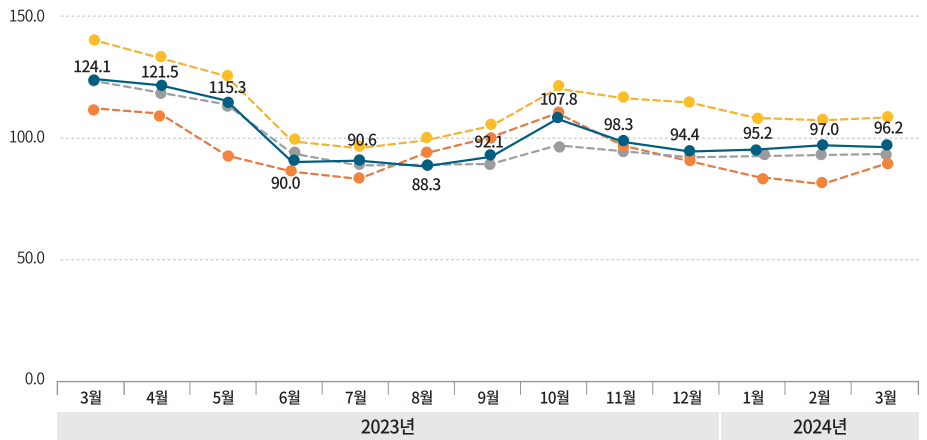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3월 평균가는 96.2달러로 전월 대비 0.8% 감소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 유연탄 가격이 0.8% 감소한 반면,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각각 10.7%, 0.6% 증가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97.0	96.2	-0.8	-22.5		
리차드베이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81.0	89.6	10.7	-20.1		
칼리만탄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91.9	92.6	92.7	93.3	0.6	-24.3		
중국남부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108.4	1.1	-22.6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4.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23년 세계 석탄발전 용량, '16년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⁴¹⁾

-  세계환경단체는 석탄발전소 추이 연례보고서⁴²⁾를 통해 전 세계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이 '15년 대비 약 11%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석탄발전 용량은 69.5GW가 신규 도입되고, 21.1GW가 폐기되어 '22년 대비 48.4GW 증가한 2,130GW에 달함
 - 이는 '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3년 폐기된 석탄발전 용량은 지난 10여 년 중 최저치를 기록함
 - 세계 석탄발전 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대표적인 원인은 중국으로 지목되는데, 중국에서 '23년 신규 도입된 석탄발전 용량은 47.4GW로 전세계 신규용량의 2/3에 해당함
 -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스, 짐바브웨)의 석탄발전소 신규 용량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함

-  우리나라는 '21년 이후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이 매년 증가했으며, '23년 가동된 석탄발전 용량은 40GW에 달해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석탄발전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사업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일례로 석탄발전소 폐쇄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에도 송전이 제한된 석탄발전소가 인근 수요처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계통 확보가 되지 않은 석탄발전소가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
 - 또한 석탄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장려하는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활용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1) 에너지데일리(2024.04.15.),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69>(2024.04.16. 검색)

42)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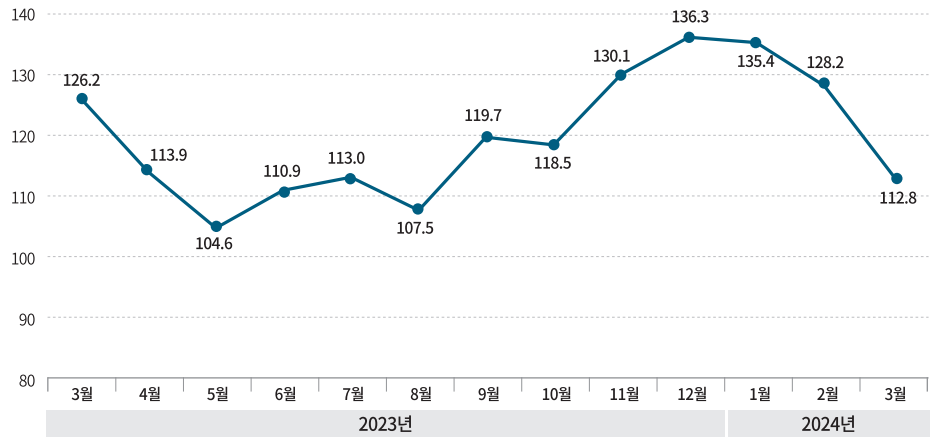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3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112.8달러 기록

- '24년 3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12.8달러로 전월 대비 12.1%,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함
-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 등으로 '24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여전히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철광석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112.8	-12.1	-10.6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4.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철광석 가격 톤당 100달러 선 붕괴⁴³⁾

❖ 철광석 가격이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톤 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짐

-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료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4월 1일 뉴욕상품거래서(CME)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95.4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1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철광석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철강 수요의 주요 동력인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중국이 자국 내 부동산 침체에 대한 부양책 등을 내놓지 않아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봄철 건설 수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3월 중국의 철강 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는 44.2p로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블룸버그 및 중국 제철업계는 철광석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올해 시장이 암울할 것으로 경고함

- 특히 부동산이 여전히 철강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관련 경기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철광석은 약세를 기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3) 한국경제(2024.04.05.),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4/03/202403140940561207e8b8a793f7_1(2024.04.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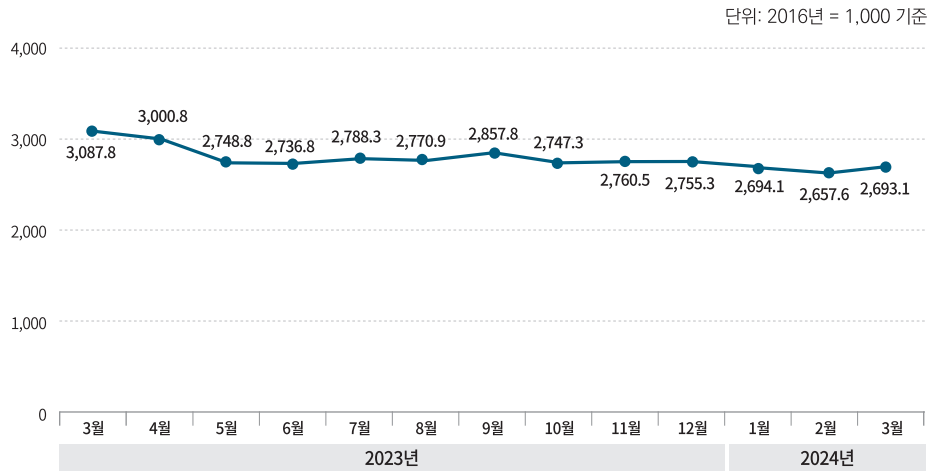
7) 기타광석



1 3월 광물종합지수는 2,693.1p로 전월 대비 1.3% 증가

’24년 3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3,087.8p) 대비해서는 12.8% 하락한 2,693.1p를 기록함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 종합지수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1.3	-12.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4.24](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4.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새만금 광물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체결⁴⁴⁾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 18만 m²(5만 4,000여 평)의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
 - 새만금 국가산단 내 비축기지 부지에는 일반창고 8개 동, 특수창고 4개 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른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 달리, 핵심광물만을 저장할 계획임
 - 또한 특수창고는 온도·습도에 민감한 희토류 및 마그네슘 등을 보관할 예정이며, 항온·항습설비와 가스센서를 설치하고 방폭·내진 기능 등을 적용함
 - 산업부는 신규 비축기지를 통해 핵심광물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으로, 현재 평균 51일분인 13종 핵심광물 비축량을 '31년 기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 결정⁴⁵⁾

- 고려아연은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기로 함
 -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는 20기의 황산 탱크를 운영 중이며,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40만 톤('23년 기준)을 포함해 연간 약 160만 톤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음
 - 고려아연은 황산 관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 필요성, 자체 생산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영풍과의 계약 종료를 결정함
 - 특히 '26년에는 자회사 캄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연간 18만 5천 톤 규모의 황산이 추가 생산되기 때문에 황산 관련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고려아연은 기존 계약과 그간 양사 간 지속되어 온 협력관계를 감안해 영풍 측에 사전 통지와 함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영풍 측이 자체적인 황산 관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4) 이투뉴스(2024.03.26.),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16>(2024.04.16. 검색)

45) 철강금속신문(2024.04.16.),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682>(2024.04.16. 검색)

8) 목재



1 '24년 1~3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41만 5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

- 중국의 수요 증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반적인 목재 수입 물량이 감소함
- 합판,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9%, 20.8% 및 3.3% 증가했으나 제재목, 성형목재 및 목재펠릿은 14.6%, 9.5% 및 9.9%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 (1-3월)	2023년 누적 (1-3월)	증감률(%)
원목(천m ³)	415	516	-19.6
제재목(천m ³)	327	383	-14.6
성형목재(톤)	19,211	21,220	-9.5
합판(천m ³)	341	313	8.9
파티클보드(천m ³)	384	318	20.8
섬유판(천m ³)	62	60	3.3
목재펠릿(천 톤)	879	976	-9.9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04.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517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4.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517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4.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 대상 확대⁴⁶⁾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⁴⁷⁾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을 추가함

- 우리나라는 '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함
-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펠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음
-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임
- 산림청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6) 산림신문(2023.03.22.), [http://sanlim.kr/m/page/view.php?no=62160\(2024.04.18. 검색\)](http://sanlim.kr/m/page/view.php?no=62160(2024.04.18. 검색))

47) 합법벌채 수입신고: 목재제품 수입, 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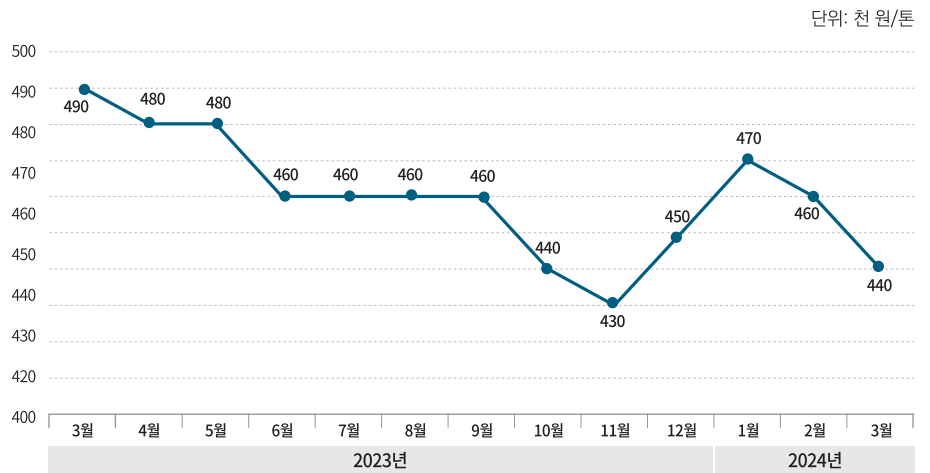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

- 📌 국내 3월 생철 가격은 톤당 44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3%,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수준임
 - '24년 1월까지 2개월간 반등한 고철 가격은 '24년 2월부터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90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60	440	-4.3	-1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4.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4.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4.23.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글로벌 고철 가격 하락세⁴⁸⁾

- 3월 말부터 강세를 보이던 튀르키예 고철 가격이 4월 초부터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3월 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던 튀르키예 고철 가격(미국산 HMS 80:20 기준)은 라마단 기간 직후의 수급 대비를 위한 계약 활동으로 3월 말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인 뒤, 4월 초 전주 대비 6달러 하락한 톤당 384달러(CFR)를 기록함
-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의 약세, 벌크선 운임의 급락 등이 이러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CFR) 선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원료탄 시세는 230~240달러(FOB)로 낮은 수준을 유지, 발틱운임지수(BDI)는 지난 4일 기준으로 1,669로, 전월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8) 철강금속신문(2024.04.10.),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4/10/PS010410010100101A0001.pdf>(2024.04.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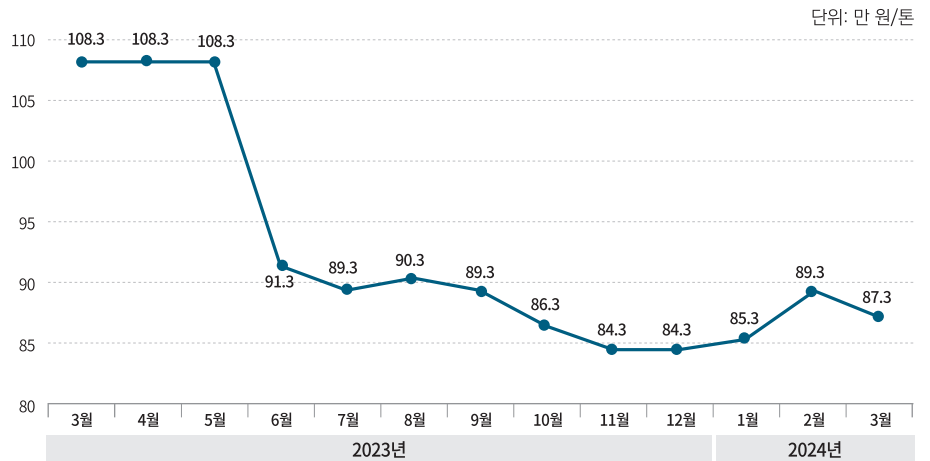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3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2% 감소한 87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9.4%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에 급격히 하락하여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84.3	85.3	89.3	87.3	-2.2	-19.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4.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4.23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24년 세계 철강 수요 1.7% 증가 전망⁴⁹⁾

- 세계철강협회는 4월 9일 발표한 '2024년~2025년 단기 세계 철강 수요 전망'에서, '24년 세계 철강 수요는 17억 9,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25년에는 18억 1,500만 톤으로 1.2%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고금리로 인해 주택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통화 긴축, 고금리에 따른 높은 금융 비용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철강 수요 성장은 약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 감소가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올해는 보험세, 내년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경우 '24년과 '25년에 걸쳐 8%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아세안(ASEAN)과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22~'23년 성장세 둔화 이후 '24~'25년에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세안 지역은 정치적 불안정, 경쟁력 저하 등으로 향후 철강 수요 증가 추세가 둔화될 수 있음
 - 선진국의 철강 수요는 '24년 1.3%, '25년 2.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EU 철강 수요가 '25년 반등하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산업별로는,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녹색 전환으로 제조업 설비 및 공공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경기는 '24년 부진이 이어진 후 '25년 회복, '23년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로 회복세를 보였던 자동차 산업은 '24년에도 약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9) 철강금속신문(2024.04.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4/15/PS010415010100101A0001.pdf>(2024.04.22. 검색)

11) 자동차



1 '24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수출·생산 모두 전월 대비·전년 동월 대비 감소⁵⁰⁾

- 2월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0.6%)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내수 판매, 수출과 생산의 전월 대비·전년 동월 대비 실적은 모두 감소함
 - 내수는 설명절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2일), 현대차 일부 공장에서의 시설조정에 따른 가동 중단, 전기차 공모 개시 지연, 수입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3% 감소한 115,745대를 기록함
 - 수출은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명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전년 동월의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198,631대를 기록함
 - 생산은 현대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과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300,459대를 기록함

* 아산공장 전기차 설비공사, 울산 3공장 라인 합리화 공사

단위 : 대, 백만\$, %

'24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46,983	263,623	116,464	115,745	232,209	-0.6	-21.3	-11.9
(국산차)	1,451,663	125,238	225,753	103,369	99,492	202,861	-3.8	-20.6	-10.1
(수입차)	287,586	21,745	37,870	13,095	16,253	29,348	24.1	-25.3	-22.5
수출	2,766,271	223,156	421,668	243,211	198,631	441,842	-18.3	-11.0	4.8
(완성차 수출액)	70,864	5,594	10,574	6,211	5,156	11,368	-17.0	-7.8	7.5
(부품 수출액)	22,954	2,015	3,741	1,912	1,982	3,894	3.6	-1.6	4.1
생산	4,243,597	347,707	654,443	358,464	300,459	658,923	-16.2	-13.6	0.7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3.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4.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3.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4.16. 검색)

2 중국 정부, EU 진출 확대를 위해 4년간 비야디(BYD)에 최소 5조 원 지원⁵¹⁾

-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EV) 제조사인 BYD에 '18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최소 34억 유로(약 4조 9,8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쾰 세계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BYD에 지급한 보조금은 '20년 2억 2,000만 유로(약 3,220억 원)에서 '22년 21억 유로(약 3조 780억 원)로 불과 2년 만에 약 10배 늘어남
 - 유럽연합(EU)은 중국 EV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 지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BYD가 중국 정부로부터 배터리 지원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도 받고 있다고 전함
 - 사실상 중국의 모든 상장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22년 직접 지원금을 받았으며, 중국의 산업 지원은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최소 3~4배는 높음
- EU는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들은 유럽 시장의 중국산 제품 과잉으로 경제적 위협을 느끼며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음**

 - BYD 외에도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니오(Nio), 지리(Geely)도 중국에서 성장한 후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반면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포함한 해외 제조업체들이 중국 EV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가격 전쟁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음
 - EU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400억 유로의 기금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지정된 보조금 마련 조치를 내놓았으며, 작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BYD, 상하이차(SAIC), 지리 등에 대해 중국의 지원이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이점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블룸버그는 이에 대한 초기 관세는 이르면 7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함

3 중국 전기차 수출 증가, 자동차운반선 시장 불안 야기⁵²⁾

- 중국을 전기차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자동차 운반선 시장의 용선료가 크게 상승함**

 -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출을 늘렸으며, 작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됨

51) 포츠저널(2024.04.11.),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580>(2024.04.16. 검색)

52) 글로벌이코노믹(2024.04.11.),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4111018162049fbbec65dfb_1/article.html(2024.04.16. 검색)

- '23년 BYD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8%인 24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올해에도 최대 40만 대를 수출할 계획임
 -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송비도 상승했는데, 클락슨에 따르면 '23년 말 6,500대 선적이 가능한 자동차 운반선의 일일 용선 요금은 '19년 평균의 7배가 넘는 11만 5,000달러(약 1억 5,600만 원)를 기록함
- 🔍 중국 자동차 제조사 및 화주들은 전기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자동차 운반 선박을 주문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책을 늘렸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수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선박을 발주하고 있음
 - 중국의 자동차 운반선 선대는 현재 33척으로 세계 8위 규모이나, 47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추가로 발주하여 선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베슨 노티컬(해운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일본이 세계 1위로 283척,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102척, 한국 72척, 맨섬(영국 국왕 관련) 61척을 보유함
 - 47척의 자동차 운반선이 모두 건조되면 중국은 세계 3위권에 진입하게 되며, 시장 점유율은 현재 2.4%에서 8.7%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선박 발주 주요 업체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SAIC 모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비야디(BYD), 글로벌 중국 선사인 COSCO, 중국 정부 소유의 기업인 차이나 머천트가 있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 🔍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 전기차를 해외 시장에 덤핑한다는 비판은 운반선 확대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나흘간의 중국 방문 동안 과잉 설비와 수출 문제를 제기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 전기차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견제를 받을 경우, 수출 물량이 줄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포화 될 수 있음
 - 즉, 중국 전기차 수출 확대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생산능력 과잉, 보조금, 시장 포화 가능성 등이 우려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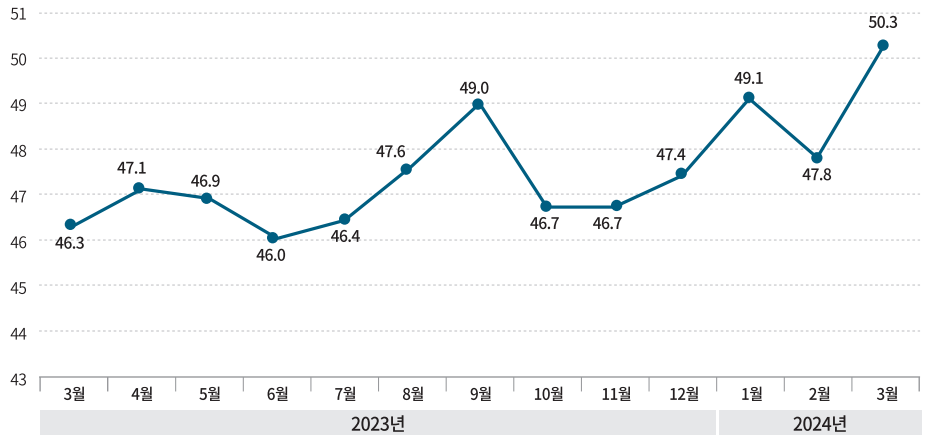
12) 잡화



1 '24년 3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는⁵³⁾ 17개월만 50p선을 상회한 50.3p를 기록함⁵⁴⁾

- 🏠 미국 제조업 PMI는 '22년 10월 50.2p를 기록한 이후 줄곧 50p를 밑돌았으나, 4월에 17개월 만에 50p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곧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있음
 - 고금리에 주춤했던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실하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의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임

미국 PMI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2024.04.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3)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4) Trading Economics(2024.04.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4.16. 검색)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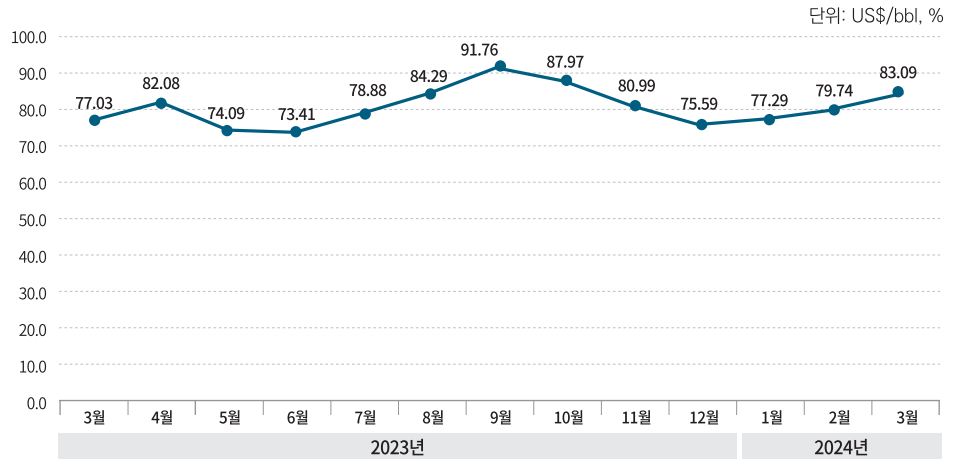


1 '24년 3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증가

국제유가는 '24년 1월에 반등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83.09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지속되는 러-우 전쟁, 이-팔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24.04.01.)으로 인한 이란의 보복공격('24.04.13.)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음
- 다양한 국가들과 무장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동에서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극단적인 상황 발생 우려로 당분간 유가는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8.51	83.44	74.96	74.99	80.45	86.46	93.25	89.75	83.55	77.33	78.85	80.88	84.18	4.1	7.2		
Brent	79.21	83.37	75.69	74.98	80.16	85.10	92.59	88.70	82.03	77.32	79.15	81.72	84.67	3.6	6.9		
WTI	73.37	79.44	71.62	70.27	76.03	81.32	89.43	85.47	77.38	72.12	73.86	76.61	80.41	5.0	9.6		
평균	77.03	82.08	74.09	73.41	78.88	84.29	91.76	87.97	80.99	75.59	77.29	79.74	83.09	4.2	7.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4.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4.16. 검색))

2 카자흐스탄, 유럽향 석유 수출 경로 다양화 모색⁵⁵⁾


-  카자흐스탄은 러-우 전쟁 이후 기존 러시아를 통한 유럽향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23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항구를 경유하지 않은 석유 수출량을 '22년 대비 약 2배인 74,600b/d('23년 석유 수출량의 5%)로 증대시켰으나, 전체 석유 수출의 80%는 아직도 러시아 흑해 항으로 이어진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에 의존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유럽 석유 수출 경로는 ①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으로 러시아 흑해 Novorossiysk항까지 운반 후 선박으로 수출, ②Uzen-Atyrau-Samara 송유관으로 러시아 내륙 Samara로 운반 후, 벨라루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Druzhba 송유관을 이용한 수출, ③아제르바이잔을 경유, 튀르키예 Ceyhan항으로 이어지는 BTC(Baku-Tbilisi-Ceyhan pipeline) 송유관 이용 후 선박 수출 등 3가지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석유는 CPC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나, 튀르키예 Dortyol 터미널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석유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24.03.05.)하면서 불안정성이 부각됨
 - Uzen-Atyrau-Samara 송유관과 Druzhba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출은 주로 독일에 석유가 수출되는 경로나, 최근 독일 내 러시아 Rosneft 자회사 매각 관련 이슈가 불안 요소가 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BTC 송유관을 통한 수출 증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만 통과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관계가 잠재적인 변수라는 시각도 존재함

5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3.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4.16. 검색)

3 인도 석유사, 미국의 신규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주저⁵⁶⁾

-  미국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죽음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피살 의혹을 제기, 신규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24.02.23.)함

 -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Mir 국가결제시스템 운영자와 미지정됐던 다수의 러시아 지역은행을 포함한 투자회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국제금융 시스템 사용을 제한함
 - 제재 대상인 개인 및 단체, 선박과 제재 대상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미국 관할권 내 자산·수익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됨
 - 또한 러시아 국영 해운회사 Sovcomflot와 14척의 유조선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회사와 그림자 함대 운영업체를 제재하여 그림자 함대 운영을 통한 러시아산 가격상한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신규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의 할인율이 높아져 러시아 석유 수익이 제한될 전망이다

-  러시아산 원유 최대 고객인 인도 석유사들은 신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됨

 - 인도 정제사들은 제재 발효 이후 Sovcomflot사 소유 유조선과 미국 제재 대상인 유조선이 인도할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취소했으며, 러시아산 Sokol 원유를 싣은 Liteyny Prospect호는 미국의 신규 제재에 따른 결제 차질로 인도로 향하지 못하고 중국 황화항에 정박함
 - 세계 최대 정제시설 운영사인 인도 Reliance Industries는 PJSC Sovcomflot 유조선에 실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월 인도향 러시아 우랄유 수출량(80만 b/d)은 '2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인도 석유사들은 휘발유, 경유 수출이 높은 경질유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산 Sokol 원유를 품질이 유사한 미국 WTI Midland로 대체하여 수입함

5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3.2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4.16. 검색)

4 셸(Shell), 탄소감축 목표 하향 조정⁵⁷⁾

📌 셸은 '21년 이후 처음으로 '2024 Shell 에너지 전환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목표를 수정함

- 셸은 총 탄소 배출량을 총 에너지 판매량으로 나눈 탄소 집약도 목표를 당초 '30년 20% 감축에서 15~20%로 낮추고 '35년 탄소 집약도 목표를 철회했으나, '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함
- 셸은 빠르게 탈탄소화되고 있는 발전 부문과 관련해 난방용 연료로 천연가스가 석탄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신재생 에너지 성장의 보완책으로 가스 자원의 유연성을 강조함
- 한편, 타 석유 메이저들도 환경 이슈보다 석유 및 가스 사업을 확대하고 주주의 가치 창출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중단기 환경 목표를 현실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다만, '50년까지 아직 26년이 남아있어 석유회사들이 탄소 감축을 자본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4.05.),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4.16.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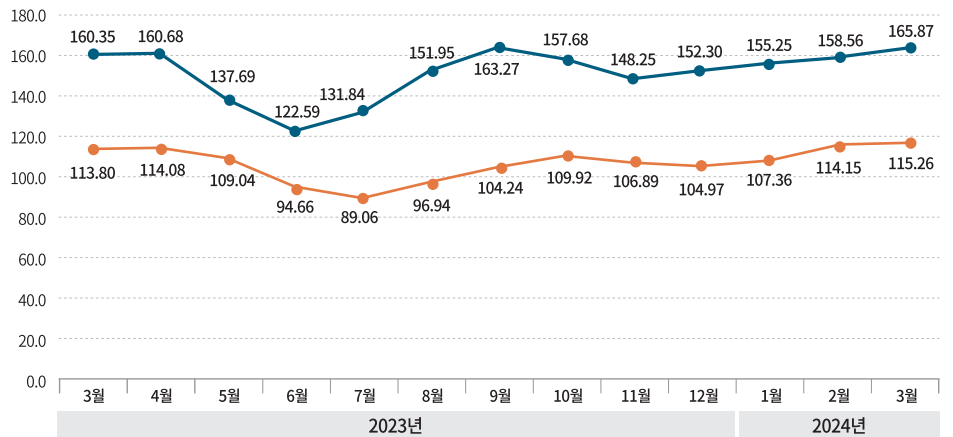
① 나프타·에틸렌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동반 상승

■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3년 12월과 '24년 1월 반등하여 3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한 165.87p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한 115.26p를 기록함
-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나,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에서의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0.35	160.68	137.96	122.59	131.84	151.95	163.27	157.68	148.25	152.30	155.25	158.56	165.87	4.6	3.4		
에틸렌	113.80	114.08	109.04	94.66	89.06	96.94	104.24	109.92	106.89	104.97	107.36	114.15	115.26	1.0	1.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4.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4.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롯데케미칼, 말레이 공장 가동률 급락⁵⁸⁾⁵⁹⁾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대규모 생산기지 ‘롯데케미칼타이탄’(LC타이탄)의 공장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

-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C타이탄의 NC(나프타크래커센터), BTX(방향족·벤젠 톨루엔 자일렌),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의 생산 공장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함
- 품목별로 보면, NC의 작년 공장 가동률은 63.8%로 전년 동기(79.5%) 대비 15.7%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BTX는 57.2%에서 46.4%로 10.8%p, PE는 85.1%에서 80.5%로 4.6%p, PP는 74.2%에서 66.3%로 7.9%p 감소함
-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생산실적도 큰 폭으로 줄어 들었는데, 가동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NC는 '22년 103만 2,586톤에서 '23년 82만 9,182톤으로 20만 톤 이상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BTX 약 3만 톤, PE 약 4만 7,000톤, PP 약 5만 톤 감소함

LC타이탄의 공장 가동률 하락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동률을 낮추며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LC타이탄은 '10년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 차오그룹 등으로부터 약 1조 5,000억 원에 인수한 회사로 '1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00~5,000억 원대의 이익을 내는 알짜 자회사임
- 다만, 중국이 기초화학소재를 자급화하며 대규모 수요 증설에 나서면서 최대 고객사였던 중국의 수요가 자급화로 급감하고, 저가 제품이 늘며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22년 2분기에는 적자 전환함
- 최근에는 롯데케미칼의 LC타이탄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상장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매수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임
- 롯데케미칼은 작년 중국 내 기초 석유화학 생산 공장인 롯데케미칼자싱과 롯데케미칼 삼강 지분을 현지 협력사에 매각하는 등 해외법인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을 생산하는 중국 허페이법인, 폴란드 판매법인(롯데케미칼폴란드), 페트(PET)와 나일론을 생산하는 계열사 케이피켄텍도 청산함
-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LC타이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업황이 좋지 않아 가동률을 조절하며 생산량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8) 뉴시스(2024.03.2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9_0002666853&clD=13001&plD=13000(2024.04.16. 검색)

59)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3.20.),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4001 (2024.04.16. 검색)

3 LG화학, 부진한 석유화학 사업 매각 딜레마⁶⁰⁾⁶¹⁾

LG화학은 중국발 보호주의 여파로 부진한 석유화학 사업정리에 고심하고 있음

- 부진한 사업 정리를 위해 작년 연 33만 톤 규모의 충남 대산 BPA(비스페놀A)·페놀 공장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조건 등이 맞지 않아 무산됨
- 몇 년 전까지 수익성이 괜찮았던 LG화학의 BPA사업은 중국의 공격적인 자국 내 확장으로 수익성이 급감했으며, 사업성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도화학과 BPA JV(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됨
- LG화학은 앞서 IT 소재인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매각하였으며,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매각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부진 사업을 매각하는 선택과 집중 행보를 보여옴
- 다만 중국발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 업황이 좋지 않아 관련 사업에 대한 매각이 쉽지 않으며, LG화학이 현재 석유화학 부진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JV 등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0) FETV(2024.03.31.),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61892>(2024.04.16. 검색)

61)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4.01.),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4021 (2024.04.16.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4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